탁월한 승차감과 정숙성 타이어시장 왕권 노린다



◀ 2010년 창립 50주년 기념작으로 출시돼 지금까지 700% 이상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 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금호타이어의 50년 기술력이 담긴 최상급 모델로 자체 성능평가 결과 승차감, 소음, 제동, 마모 등 전 부문에서 국내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이 입증됐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

2010년 창립 50주년 기념작으로 출시됐던 금호타이어의 프리미엄타이어 '마제스티 솔루스(Majesty Solus)'가 출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한 판매 증가를 보이며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승차감과 안정성이 동급 최고로 평가받는다.

금호타이어 50년간 쌓은 최고 기술 접목
첫 출시 2011년 대비 판매량 700% 성장
못에 찔려도 실란트 층이 공기누출 막아
올 상반기 공명음 저감 타이어 출시 예정

●급이 다른 정숙성으로 판매량 700% 성장

마제스티 솔루스는 출시 첫 해 6개 규격으로 제작됐지만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현재 48개 규격까지 확대돼 생산된다. 판매량을 보면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판매량은 2011년 대비 700% 이상 늘었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금호타이어의 50년 타이어 역사를 통해 쌓아온 최고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최상급 모델이다.

국산·수입차를 막론하고 고급 세단을 타는 소비자들에게 타이어 선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어떤 타이어로 바꾸느냐에 따라 승차감과 정숙성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특수 실리카와의 결합력이 극대화된 다기능성 고무를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승차감 및 제동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고급 세단의 높은 출력과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한국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4개의 와이드 그루브를 장착해 배수성과 직진 주행성능도 높였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안정된 성능을 유지한다.

고급 타이어의 절대 가치인 정숙성도 남다르다. 최첨단 저감 기술을 사용해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중대형 세단 운전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항목인 중·고속 주행시의 타이어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금호타이어의 기술 구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타이어의 좌우 패턴 디자인을 달리한 인-아웃(In-Out) 디자인을 채택해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성능도 끌어올렸다. 안쪽 디자인을 통해 정숙한 승차감과 저소음을 구현하고, 바깥쪽 디자인을 통해서는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향상시켜 전체적인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준다.

●경쟁 제품보다 5~10% 우수한 성능 발휘

마제스티 솔루스는 자체 성능 평가 결과 승차감, 소음, 제동, 마모 등 타이어를 평가하는 전 부문에서 국내 경쟁 제품보다 5~10% 정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에쿠스, 체어맨과 같은 대형 세단 및 대형 수입 세단을 대상으로 20인치까지 판매되고 있다.

마제스티 솔루스는 2014년 노면의 못이나 쇳조각 등의 이물질이 바닥면을 관통했을 때 타이어가 자체적으로 손상 부위를 봉합해 공기 누출 없이 정상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신개념 타이어인 실란트 타이어로도 선보인 바 있다. 일반 타이어는 주행 중에 못이나 뾰족한 물질이 트레드를 관통하면 타이어 내부에 있는 공기가 누출돼 주저앉게 된다. 하지만 실란트 타이어는 젤리 형태의 실란트 층이 손상 부위로 자동적으로 이동, 자가 봉합(self-sealing)을 통해 손상 부위를 메워 타이어 공기압 누출을 막아준다.

실란트 타이어는 일반타이어 대비 중량이 10%정도 높지만 승차감과 제동성능, 핸들링 성능 및 소음 정도는 일반 타이어와 동등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처음으로 선보였다. 또 금호타이어는 올해 상반기에 마제스티 솔루스를 기반으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공명음 저감타이어를 출시할 예정이다. 공명음이란 타이어 바닥면과 노면간 접촉으로 인해 타이어 내부의 공기가 진동하여 발생하는 소음이다. 공명음 저감 타이어는 타이어의 트레드 내부에 다공성 폴리우레탄 폼(흡음재)을 부착시켜 타이어 공명음을 감소시킨 타이어를 말한다. 금호타이어는 흡음재 형상 및 재질을 최적화한 'K-silent system' 이라는 자체 기술을 적용하여 공명음 저감효과를 극대화했다. 금호타이어는 일반타이어와 흡음재를 부착한 공명음 저감 타이어와 자체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자사의 기존 프리미엄 제품 대비 8%정도의 소음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금호타이어, 대학생 채용설명회

이공계 4학년 초청 연구소 견학

금호타이어는 28일 이공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경기도 용인의 중앙연구소에서 사전접수를 통해 신청 받은 기계 및 화학공학 전공 대학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기업의 인재상, R&D 직무 등을 소개하고 면접 이미지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중앙연구소 연구원들과 대학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해 직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박유성 금호타이어 HR담당 상무는 "중앙연구소는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외 우수 인재 채용에 힘쓰고 있다"며 "세계적인 타이어 기술력의 산실로서 지속적인 연구 인력 확보 및 첨단 설비 확충으로 우수 인재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4월2일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상반기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입 및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원성열 기자



28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열린 채용 설명회에 참가한 기계 및 화학공학 전공 대학생들. 사진제공 | 금호타이어

한샘, 오너일가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의혹

내부거래 매출비중 최대 70% 기록
인조석가공조합, 기자회견서 밝혀

한샘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최양하 회장과 창업주인 조창걸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한샘이펙스에 일감을 몰아줘 수십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샘이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면서 소상공인 영역에 침투해 연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한샘이펙스는 가구업계 1위 한샘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2013년 매출액 614억원에서 지난해 1000억원 가량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한샘이펙스의 지분은 최양하 회장이 41.28%, 한샘 창업주 조창걸 회장이 5%,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은영씨가 35.52%, 강승수 한샘 부사장이 5%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은 "최근 5년간 한샘이펙스가 한샘으로부터 끌어올린 매출 규모는 2010년 202억원, 2011년 260억원, 2012년 264억원, 2013년 286억원, 2014년 337억원"이라며 "한때 최대 70% 가까운 내부거래 매출 비중을 기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샘이펙스가 2010년에 95%, 2011년에 55%의 고배당을 실시해 최양하 회장과 조은영씨에게 수 십 억원의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맹성국 인조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샘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하는 원료는 중국산 UP(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로 기존 MMA(메타아크릴래이트)와 겉으로 구분이 되지 않지만 30% 이상 가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에 약하고 내구성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샘이펙스가 인조대리석 가공을 하게 된 것은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과 서비스는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샘이펙스의 한샘 매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